

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동네 문화체육센터에서 배드민턴을 배우겠다고 하던 아이가 며칠째 수강 등록을 미적거리는데...
동네 체육시설의 회원 등록이 어렵다니 이제 얼마가 나설 차례다.

다문화 동네에서 크는 아이들

그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달라졌다. 지난 20년 동안 매해 0.5%이상씩 늘어난 국내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올해 5%를 넘어섰다.

롭다. 출생 시기부터만 2세까지는 간단한 운동 능력을 배우고 놀람게도 이 시기에 주변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다고 한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앵두나무가 있었다.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다가 꽃 피고 열매 맺을 때면 저절로 눈길이 갔다.

앵두나무

취해버렸다고 할까. 나무는 크지 않았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누가 심어놓은 것인지도 몰랐다.

했다. 함부로 따먹지 말라는 신호인지 알지도 몰라는 경고인지 아쉬웠지만 배나무를 옆두에 두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기고



김종일
전남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

6월 초순인데 완연한 여름 날씨가. 지난달 20일 여수를 비롯해 강진, 완도 등지에서는 각각 5월 최고기온을 보였다.

탄소중립, 이제는 이행이다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급세기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최소 2.5℃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세계의 기후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을 통해서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기후공시 의무화에 이어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도입도 추진 중이다.

社說

저출산 1위 광주, 획기적 다동이 지원책 절실

저출산 시대, 광주 북구 문흥동의 30대 부부가 세 쌍둥이를 낳아 기르는 훈훈한 이야기가 화제다.

아로 경력단절에 놓일 수 있어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시는 저출산 1위일 정도로 인구 감소 위기에 놓여있다.

의대 지역선발 확대, '지방유학' 시대 열리나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수도권 361명, 비수도권 1639명) 증원하는 '2025학년도 의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부모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지역으로 유학을 보내던 터였다. 교육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직장인이거나 대학 재학생들도 '반수'를 선택하는 등 의대 진학 열기가 과열될 수 있다.

Advertisement for 'K-HERITAGE' featuring '無等鼓' logo and text about cultural heritage services.

Advertisement for 'The Kwangju Ilbo' newspaper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